

# 合理的 期待理論과 巨視經濟學의 變貌

李 性 輝\*

<目 次>

I. 序 論
II. 巨視經濟學의 基本模型에 관한 여러 理論
III. 合理的 期待理論
IV. 新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의 基本內容
V.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對應
VI. 結 論

## I. 序 論

主流 巨視經濟學의 자리를 놓고 현재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케인지안 巨視經濟學과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學(New Classical Macroeconomics)<sup>(1)</sup> 간의 論爭을 정리하고 巨視經濟學의  
 現況을 개관하기 위하여서는 巨視經濟學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巨視經濟學은 케인즈의 一般理論과 더불어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이론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케인즈의 一般理論을 소화하고 정리하여 IS·LM模型의 기본적 틀이 짜여지  
 고, 기본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消費, 投資, 通貨需要 등의 각 部門의 理論的 기초를 經濟主  
 體의 合理的 行動에서 출발하여 구축함으로써 理論體系를 갖추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  
 러 IS·LM模型을 주축으로 한 理論體系가 구축되고 經濟學者들간에 대체로 巨視經濟學의  
 基本模型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면서 古典學派의 微視經濟理論과 케인지안의 巨視經濟理  
 論을 종합한 新古典派綜合의 體系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에 대한 기  
 본적 합의는 理論的 측면에서는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通貨主義者들에 의  
 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인플레이션의 현상과 이에 수반하  
 여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對應  
 策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결과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기 시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 新古典學派 理論(Neoclassical Theory)과 구분하기 위하여 New Classical Macroeconomics를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이라고 번역하였다.

작하였다.

한편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기본골격을 이루었던 IS·LM모형은 通貨市場과 財貨市場의 同時的 均衡을 다루는 理論으로서 기본적으로 需要에 관한 理論이며 物價水準을 모형내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필립스[51]에 의하여 제시된 失業과 인플레이션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종래 IS·LM모형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勞動市場을 도입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總供給曲線이 기본모형에 도입되어 物價水準을 기본모형내에서 다룰 수 있는 總需要·總供給模型이 등장하게 된다. 즉, IS·LM모형의 均衡을 物價水準의 변화와 관련하여 재해석하여 物價와 需要產出量의 關係를 나타내는 總需要曲線을 도출하고 필립스곡선을 적절하게 재정리하여 總供給曲線을 도출함으로써 總需要曲線과 總供給曲線에 의하여 國民所得과 物價水準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巨視經濟理論의 기본모형으로서의 總需要·總供給模型이 정립되어 점차 IS·LM모형을 대체하여 갔다. 1960年代에 全盛期를 이루었던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이 점차 퇴조해 가고 合理的 期待革命에 의한 새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New Classical Macroeconomic Theory)의 등장과정을 정리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거시경제학의 기본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總需要·總供給模型을 이용하여 각 理論의 내용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本論文에서는 第Ⅱ節에서 基本模型에 대한 상이한 觀點들을 總需要·總供給模型에 의하여 (i) 古典學派 巨視經濟模型, (ii) 케인지안 巨視經濟模型, (iii) 通貨主義 巨視經濟模型 및 (iv) 새古典學派 巨視經濟模型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古典學派의 巨視經濟理論을 정리하는 이유는 經濟學史의 觀點에서의 관심이라기보다는 通貨主義와 새古典學派 理論의 기본적 배경이 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의 전통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第Ⅲ節에서는 合理的 期待理論을 정리하고 合理的 期待理論의 도입이 經濟模型의 기본적 성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뮤쓰[45]에 의하여 분석된 간단한 農產物市場을 이용하고자 한다.

第Ⅳ節에서는 새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의 기본적 내용에 대해 合理的 期待를 도입한 경우 巨視經濟政策의 效果가 무력하게 된다는 政策無力性의 命題와 그 批判을 정리하고 종래의 計量經濟模型에 의한 정책분석의 기본적 결함을 지적한 ‘루카스의 批判’(Lucas’s critique)을 다룬다. 아울러 새古典學派 巨視經濟學 중에서 가장 큰 論難을 일으키고 있는 均衡景氣變動理論의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第Ⅴ節에서는 物價와 賃金の 完全伸縮性과 연속적 市場清算의 가정에 기반을 둔 새古典學派 巨視經濟學에 대한 賃金과 價格의 硬直性에 근거한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입장에서 批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먼저 契約理論과 價格正札經濟(price-tag economy)의 理論에

의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살펴본 후 連續的 均衡의 개념에 대한 케인지안의 批判을 정리한다.

第Ⅵ節에서는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學과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근본적 의결 不一致를 가져 오게 되는 요인들을 資本主義 經濟를 보는 기본적 시각의 차이와 均衡理論의 현실적 적용의 측면에서의 方法論的 內지 理論的 차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II. 巨視經濟學의 基本模型에 관한 여러 理論

巨視經濟理論의 전개·發展은 크게 보면 두가지 흐름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巨視經濟의 運행에 대한 自由放任主義的 立場이고 다른 하나는 干涉主義的 立場이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등장하기 이전의 巨視經濟問題에 관한 思考는 古典學派의 巨視經濟理論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는데, 이 理論에 의하면 經濟全體에 걸친 長期的인 失業은 存在하지 않으며 비록 일시적으로는 失業이 발생하더라도 價格과 名目賃金이 伸縮的으로 조정되어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介入은 最小化되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케인즈 經濟學에 의하여 대변되는 干涉主義的 立場은 資本主義 經濟는 本質적으로 不安定하며 經濟는 總需要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不完全雇傭均衡에 머무르게 되며, 政府의 財政政策과 金融政策(특히 財政政策)에 의한 積極적 介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立場이다.

케인즈의 一般理論 이후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이 主流 巨視經濟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干涉主義的 立場이 강화되고 國民經濟에서 政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프리드만[24]의 新貨幣數量說 이후 점차 부활하게 된 通貨主義는 古典學派의 自由放任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경제운용에 있어서 通貨와 通貨政策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새 古典學派 經濟學은 合理的 期待理論을 주축으로 하여 古典學派의 經濟觀과 方法論을 활용하여 巨視經濟理論을 재구성하였으며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에 대하여 통렬한 批判을 가하였다. 以下에서는 總需要·總供給 模型을 이용하여 각 理論의 內容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1. 古典學派 巨視經濟學<sup>(2)</sup>

古典學派의 見解에 의하면 雇傭量은 勞動의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와같이 雇傭量이 결정되면 生産函數에 의하여 產出量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를 價格·產出量 平面에

(2) 古典學派의 經濟學者들이 總需要·總供給模型을 이용하여 巨視經濟를 分析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巨視經濟理論이 가지고 있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古典學派의 理論을 재구성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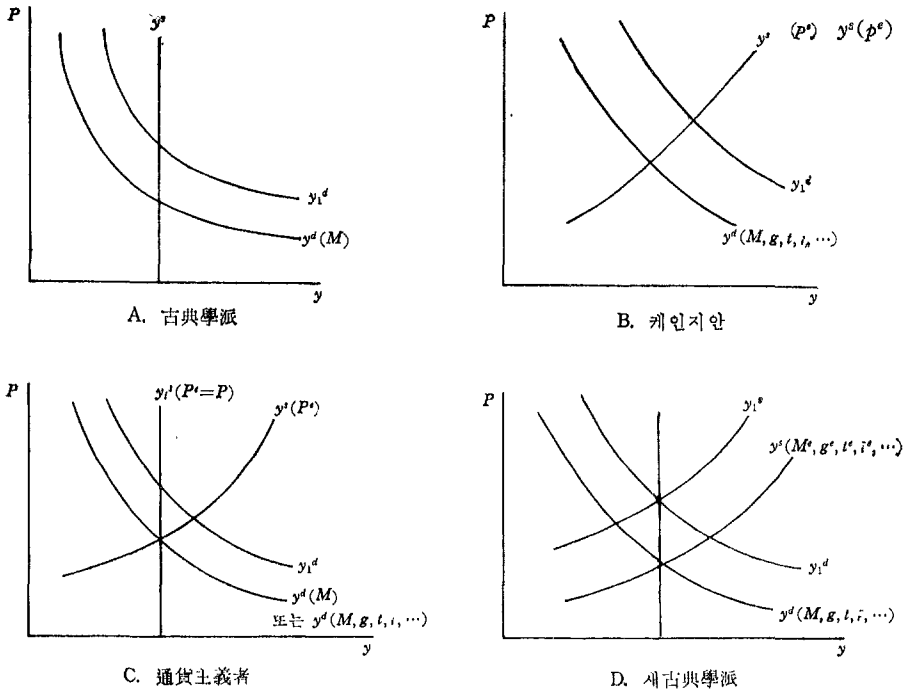


그림 1. 總需要·總供給에 관한 여러 理論

정리하면 그림 1—A의 總供給曲線  $y^s$ 와 같이 수직선이 된다. 즉, 物價水準의 變化는 產出量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產出量은 勞動市場과 生産函數에 의하여 결정된다. 總需要曲線은 貨幣數量說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通貨量과 마찰의  $k$ 의 수준이 주어지면,  $\bar{M} \cdot \frac{1}{k} = Py$ 가 되어 價格과 需要國民所得間的 관계가 도출된다. 이 理論의 특징적인 점은 勞動市場의 需要와 供給은 實質賃金에 의존하며 勞動市場이 清算되면서 雇傭량이 결정된다.

## 2. 케인지안 巨視經濟學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總需要理論은 古典學派에서와는 달리 消費函數, 投資函數 등을 도입하여 수요항목을 行態方程式에 의하여 明示의으로 설명하여 總需要理論을 구축한다. 그러나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가장 큰 理論의 革新은 價格 및 賃金의 硬直性을 도입하여 經濟가 總需要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不完全雇傭에서 均衡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 財政政策에 의한 政府의 積極적 介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데 있다. 初期의 케인지안의 理論은 總需要理論의 측면에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供給側面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림 1의 B에 의하여 이를 설명하면 總需要曲線이 주어지고 價格水準이 歷史

的으로 주어지면 주어진 價格水準에서 總需要에 의하여 產出量이 결정된다.

필립스곡선에 관한 理論이 계기가 되어 케인지안 理論의 기본모형은 IS·LM모형에서 점차 總需要·總供給模型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總供給曲線の 理論的 기초에 관한 논의는 케인지안 經濟學 內部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 케인지안 經濟學者들은 總供給曲線이 右上方으로 경사하는 이유를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에서 찾고 있다. 케인지안 모형에 의하면 總需要의 변화는 產出量의 지속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

### 3. 通貨主義

通貨主義者들은 케인지안의 간섭주의적 理論에 반기를 들고 新貨幣數量說을 중심으로 하여 케인지안의 이론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通貨主義者들의 經濟觀에 의하면 經濟의 民間部門은 본질적으로 安定的이며 經濟의 不安定은 주로 政府의 經濟政策에 의한 간섭의 결과이다.

通貨主義者들의 經濟理論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命題로 정리할 수 있다.

- (i) 貨幣需要函數는 安定的이다.
- (ii) 貨幣需要函數는 經濟活動의 水準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iii) 貨幣數量은 대체로 供給則 要素에 의하여 결정된다.
- (iv) 經濟分析에 있어서 實質變數와 名目變數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通貨主義者와 케인지안간의 논쟁은 IS·LM모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通貨主義者들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命題가 케인지안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通貨主義者들의 理論이 케인지안의 理論에 흡수되고만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케인지안의 理論體系內에서의 기본적 파라미터의 값의 크기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케인지안과 通貨主義者의 경계를 보는 상호 조화될 수 없는 기본적 經濟觀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 4. 새古典學派 巨視經濟模型

새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은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理論體系에 대하여 通貨主義者들보다 더 근본적인 공격을 하고 있으며 케인지안의 理論的 틀에 '기본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古典學派는 古典學派의 方法論의 복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總需要管理政策의 유용성에 대하여 通貨主義者들보다 더 회의적이다.

새古典學派를 總需要·總供給模型의 틀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總需要理論의 측면에서는 케인지안이나 通貨主義者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總供給曲線の 측면에서 물가에 관한 期待形成過程을 새古典學派理論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適應的 期

待에서 合理的 期待로 대체하고 있다. 合理的 期待는 經濟主體들이 종래의 期待假說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非合理的으로 期待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體系的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기대를 形成한다고 본다.

物價豫想에 이를 적용시켜 보면  $t$ 期の 物價의 기대값( $P_t^e$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P_t^e = E(P_t | \Omega_{t-1})$$

(단,  $P_t$ 는  $t$ 期の 물가수준,  $\Omega_{t-1}$ 은  $t-1$ 期の 시점에서의 情報集을 나타낸다.)

예상이 이와 같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예상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P_t^e - P_t = P_t - E(P_t | \Omega_{t-1}) = \varepsilon_t$$

로 나타내어 지고 예상오차( $\varepsilon_t$ )의 期待값은 영이다. 따라서 合理的 期待는 평균적으로 옳은 예상임에 비하여 여타의 期待方法은 體系的 오류 또는 平均的 오류를 범한다.

總需要·總供給模型에서 케인지안이나 通貨主義者들은 적응적 기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프리드만[25]과 펠프스[49]에 의하여 自然率假說과 適應的 期待를 이용한 장기필립스곡선 이론이 도입된 이후의 일이다. 이제 總需要·總供給模型에 合理的 期待를 도입하게 되면 모형의 기본적 성질이 크게 바뀌게 된다. 擴張的 通貨政策의 경우를 이용하여 케인지안 이론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케인지안 理論의 경우 擴張的 通貨政策은 總需要曲線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總供給曲線은 物價期待( $P^e$ )에 의존하는데  $P^e$ 는 적응적 기대에 의하면 과거의 物價水準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擴張的 通貨政策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產出量은 증가하고 物價水準은 상승하게 된다. 반면, 新古典學派 模型에 의하면 擴張的 通貨政策은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通貨政策의 변화가 물가에 상을 통하여 총공급곡선도 이동시키기 때문에 產出量에는 變化가 없게 되며 物價水準만이上昇한다.

合理的 期待理論 이외에도 新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은 연속적인 市場清算의 가정에 입각하여 經濟理論을 구축하고 있다. 연속적인 市場清算의 가정하에서의 景氣循環의 이론에 관해서는 第IV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 III. 合理的 期待理論

巨視經濟理論에 있어서의 期待의 重要性은 새삼 強調할 必要가 없다. 消費函數, 投資函數 및 貨幣需要函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巨視經濟模型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行態方程式이 期待所得, 期待利率 等の 期待變數의 영향을 받는다.

合理的 期待理論이 등장하기 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期待로서 靜學的 期待(static expecta-

tion)와 適應的 期待를 들 수 있으며 適應的 期待理論이 거시경제이론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以下에서는 說明의 편의상 뮤쓰[45]에 의하여 使用된 農產物市場模型을 分析하여 靜學的 期待와 適應的 期待 및 合理的 期待의 差異를 살펴보고 하며 特別히 期待에 관한 이론의 차이가 模型의 特質에 대하여 重要的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靜學的 期待, 適應的 期待 및 合理的 期待를 간략하게 수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精確적 기대 :  $P_t^e = P_{t-1}$

ii) 적응적 기대 :  $P_t^e = P_{t-1}^e + \beta(P_{t-1} - P_{t-1}^e)$

iii) 합리적 기대 :  $P_t^e = E(P_t | \Omega_{t-1})$

에제킬[17]의 거미집모형에 의하면 需要, 供給에 의하여 價格과 產出量이 결정되는 市場 模型에서 供給量이 期待價格水準에 의존할 경우 靜學的 期待를 이용하여 定式化한 市場 模型은 다음과 같다.

$$Q_t^d = a - bP_t$$

$$Q_t^s = c + dP_t^e$$

$$Q_t^d = Q_t^s$$

$$P_t^e = P_{t-1}$$

이 模型의 解  $P_t$ 를 求하면  $P_t = \left(\frac{a-c}{b+d}\right) + \left(\frac{-d}{b}\right)^t$ 가 되어 價格은 진동하게 되어 거미 집原理가 成立한다.

價格에 대한 解는 두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項이 長期均衡價格水準을 나타낸다. 다른 충격이 없는 한 價格은  $\frac{a-c}{b+d}$ 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두번째 項을 보면  $-\frac{d}{b}$ 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時間  $t$ 가 經過함에 따라 부호가 交代되게 되며 진동한다. 安定條件  $\left(1 - \frac{d}{b} < 1\right)$ 이 充足되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長期均衡價格에 수렴하게 된다. 이 模型은 未來價格에 대한 期待가 現在價格에 依하여 決定될 경우 市場均衡은 진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農產物市場들을 실제로 觀察한 結果 市場의 不安定性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거미집원리가 豫測하는 것과 같이 모든 農產物市場에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너로브[46]는 단순한 거미집모형에 의하면 市場이 지나치게 不安定하다는 잘못된 結論을 가져올 수 있다는 點에 착안하여 케이진[14]의 超인플레이션의 研究에서 活用된 適應的 期待의 아이디어를 農產物市場의 分析에 活用하였다. 너로브의 模型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_t^d = a - bP_t$$

$$Q_t^s = c + dP_t^e$$

$$Q_t^d = Q_t^s$$

$$P_t^e = P_{t-1}^e + \beta(P_{t-1} - P_{t-1}^e), \quad 0 < \beta < 1 \quad (\text{적응적 기대})$$

適應의 期待의 假說은 經濟主體가 物價에 대한 예상치  $P_t^e$ 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經過하면 예상치를 最近의 경험을 이용하여 修正하여 간다는 假說이다. 너로브의 모형을 정리하면  $P_t$ 에 대한 一階差分方程式이 도출되는데 그 解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P_t = \frac{a-c}{b+d} + \left\{ \left( \frac{-d}{b} - 1 \right) \beta + 1 \right\}^t$$

物價의 時間經路에 대한 解는 두 項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첫번째 項이 長期均衡値와 同一하다. 반면 두번째 項은 모형의 動學的 反應을 나타내는 項인 데 均衡의 安定條件  $\left( \left| 1 + \beta \left( \frac{-d}{b} - 1 \right) \right| < 1 \right)$ 이 成立하는 경우 物가는 長期的 均衡値에 收斂해 간다. 그 收斂過程은 거미집모형의 경우와 다르다. 거미집모형의 경우 항상 진동하면서 收斂하는 데 반하여 너로브의 경우 파라미터  $\beta$ 의 값 여하에 따라 진동하지 않으면서 漸進的으로 수렴해 갈 수도 있다. 파라미터  $\beta$ 는 期待의 調整過程에 대한 一種의 브레이크의 역할을 함으로써 모형의 解가 진동하는 것을 緩和하는 구실을 한다.

이제 뮤쓰[45]를 따라 合理的 期待를 導入하여 模型을 재정립하여 보도록 하자. 뮤쓰의 착안점은 과거에 動學的 經濟模型을 完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期待方式이 活用되었지만 이들 기대방식이 실제 經濟模型이 움직이는 原理와 相馳된다는 點이다. 뿐만 아니라 過去의 期待方式에 의하게 되면 價格의 실제치와 價格의 豫想値의 平均이 一致하지 않게 되어 豫想値에 體系的 오류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合理的 經濟主體가 왜 體系的 誤謬를 修正하지 않고 계속 誤謬를 범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提起할 수 있다. 價格에 대한 기대방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靜學的 期待나 또는 適應의 期待는 실제로 모형내에서 價格이 決定되는 方式과는 상관없이 가격에 대한 기대가 決定된다는 사실이다. 뮤쓰는 기존경제모형이 合理的 行動의 假定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실에 착안하여 뮤쓰는 다음과 같은 假說을 제시하였다.

期待는 未來의 사건에 대한 識見을 가진 豫測이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關聯經濟理論의 豫測과 同一하다.

뮤쓰의 合理的 期待假說은 經濟主體의 經濟變數에 대한 主觀的, 心理的 期待를 이들 變數의 數學的 條件附期待値와 同一視한다. 그 結果 經濟主體의 주관적 기대치는 平均的으로 그 變수의 實際値와 同一하다. 즉 合理的 期待에 의하면 적어도 體系的 誤謬는 범하지 않게 된다. 合理的 期待假說에 의하면 經濟模型이 주어졌을 때 合理的 期待假說에 의한 豫測値는 平均的으로 그 變數의 實際値와 同一하다. 기대치가 실제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體



系내에 豫測不可能한 不確實性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體系內에 豫測不可能한 不確實性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어떤 變數에 대한 기대치는 그 변수의 실제치와 一致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完全豫見의 경우이다. 즉,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주로 活用되었던 完全豫見의 期待는 合理的 期待의 特殊한 경우로서 體系內에 不確實性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 成立한다.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이 古典學派의 方法論을 一般化하여 活用하고 있다는 點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合理的 期待假說은 完全豫見의 假說을 經濟體系內에 不確實性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쓰의 假說을 市場模型의 경우에 適用하여 보도록 하자.

$$Q_i^d = a - bP_i$$

$$Q_i^s = c + dP_i^e$$

$$Q_i^d = Q_i^s$$

$$P_i^e = E(P_i | \Omega_{i-1})$$

이 模型의 解  $P_i$ 를 구하면  $P_i = \frac{a-c}{b+d}$ 가 된다. 이를 에제킬이나 너로브의 경우와 比較하면 무쓰의 경우 價格  $P_i$ 는 長期 均衡值에 즉각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사실은 期待形成에 대한 假說에 따라서 模型의 特質이 크게 差異가 난다는 사실이다.

以上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무쓰의 合理的 期待를 需要·供給의 模型에 適用하게 되면 需要·供給模型의 特質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무쓰의 期待가 내포하고 있는 巨視經濟學의 側面에서의 革命的 意味가 빠르게 巨視經濟理論에 反映되지 못했던 理由는 1960年代의 거시 경제이론의 基本的인 體系가 IS·LM 모형이었던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1960年代 初에 거시 경제이론의 基本模型이 總需要와 總供給에 의하여 物價와 產出量을 同時에 결정하는 總需要·總供給模型이었다라면 合理的 期待革命은 실제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

#### IV.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은 (i) 合理的 期待理論과 (ii) 連續的 市場清算의 假定에 기반을 두어 理論體系를 구축함으로써 巨視經濟理論에 合理的 期待革命(Rational Expectations Revolution)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本節에서는 먼저 政策無力性的 命題(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와 이에 대한 批判을 整理하고 計量經濟模型을 利用한 종래의 政策分析方法에 대한 '루카스의 批判'을 소개한 後, 새 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의 가장 論爭的 部分이라고 볼 수 있는 均衡景氣變動理論

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政策無力성의 命題와 그 批判

프리드만[25]과 펠프스[49]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失業사이 短期的으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期待가 調整되는 速度가 完만한 데 기인하는 것이며, 經濟主體들이 지속적으로 實際인플레이션率과 다른 期待인플레이션率을 믿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長期에는 期待인플레이션과 實際인플레이션이 同一하게 되고 인플레이션과 失業사이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없다는 自然率假說을 주장하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期待가 實際인플레이션경험에 따라 서서히 調整되는 경우 정부는 民間經濟主體를 착각하게 함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雇傭을 增加시킬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면 期待인플레이션이 上向조절될 때까지의 과도기동안에 產出量이 增加하게 된다.

合理的 期待論者들은 自然率假說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왜 經濟主體가 인플레이션율에 대하여 體系的으로 착각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만일 經濟主體가 厚生極大化를 目標로 하고 있다면 經濟主體들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하여 正確한 豫測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물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을 完全하게 精確히 豫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經濟主體들은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을 포함한 모든 利用 可能한 情報를 活用하여 인플레이션율을 豫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인플레이션率의 平均値와 期待인플레이션率의 平均値는 一致하게 될 것이다.

사건트와 윌라스[54]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상기 命題는 通貨政策의 有效性에 대하여 아주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왜냐하면 民間經濟主體들이 通貨當局을 관찰하고 物價를 豫測함에 있어서 政策當局의 行動을 고려하게 된다면 通貨政策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變化만이 期待인플레이션율과 實際인플레이션率의 差異를 유발할 것이다. 政策無力성의 명제에 의하면 經濟政策의 豫測可能한 變化는 產出量, 雇傭 및 다른 實質變數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政策의 豫測不可能한 變化만이 產出量의 實質變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政策無力성의 命題를 사건트와 윌라스[54]의 논문에 기반을 둔<sup>(3)</sup> 간단한 模型을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模型은 總需要曲線, 總供給曲線 및 通貨供給規則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총수요곡선은 古典學派의 단순한 총수요곡선을 상정하도록 하며 通貨政策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政策變數인 단순한 모형에 상정하도록 하자. 설명의 편의상 通貨의 流通速度가 固定이라고 假定하면 총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3) 政策無力성의 명제는 루카스[33, 34]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나 간단한 모형에 의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사건트와 윌라스에 기반을 둔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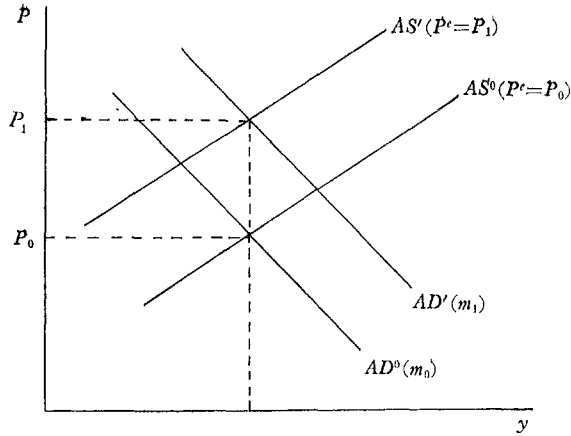


그림 2. 총수요 · 총공급모형

$$m_t + \bar{V}_t = P_t + y_t$$

- 단,  $m_t$ : 통화공급의 대수값
- $\bar{V}_t$ : 통화유통속도의 대수값
- $P_t$ : 물가수준의 대수값
- $y_t$ : 실질국민소득의 대수값

총공급곡선은 설명의 편의상 루카스의 총공급곡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총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y_t = y_p + \beta(P_t - P_t^e)$$

- 단,  $y_p$ : 自然產出量
- $P_t^e$ :  $t-1$ 기에서 본  $t$ 기의 물가수준의 期待値

만일 實際물가수준이 期待물가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產出量은 完全雇傭水準보다 증가한다. 通貨供給과 物價期待가 고정되어 있다고 假定하면 총수요 · 총공급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이용하여 通貨供給의 效果를 살펴보면 通貨當局이 通貨量을  $m_0$ 에서  $m_1$ 으로 증가시킬 경우 총수요곡선은  $AD^0$ 에서  $AD^1$ 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合理的 經濟主體는 물가수준이  $P_0$ 에 머무를 것으로 期待하지 않는다. 만일 民間部門이 通貨量의 증가에 따라 물가수준이 比例的으로 上昇하리라고 期待한다면 총공급곡선은  $AS^0$ 에서  $AS^1$ 으로 이동하게 된다. 追加의인 쇼크가 없을 경우 實際물가수준은  $P_1$ 이 되고 期待물가수준도  $P_1$ 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豫想되는 通貨供給의 增加는 合理的 期待下에서 產出量에 影響을 주지 않으며 물가수준만 上昇시킨다.

通貨供給의 效果를 구체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通貨供給의 規則을 상정하자.

$$m_t = \alpha y_{t-1} + \epsilon_t$$

$t$ 기의 通貨供給은 전기의 產出量의 수준의 함수로 결정되는 부분과 豫測不可能한 誤差로 구성되어 있다. 通貨供給중에서 전기의 產出量의 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  $\alpha y_{t-1}$ 은 피드백 政策으로서 이 政策은 民間部門에 알려져 있다고 假定하자. 政策中立性的의 명제에 의하면 피드백 規則의 파라미터는 政策當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政策當局이  $\alpha$ 의 값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든지 산출량의 수준에는 變化가 없다는 것이다.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上記 模型을 풀면 다음과 같다.

$$P_t = \alpha y_{t-1} + \bar{V} - y_p + \frac{\varepsilon_t}{1+\beta}$$

$$y_t = y_p + \frac{\beta}{1+\beta} \varepsilon_t$$

$$P_t^e = \alpha y_{t-1} + \bar{V} - y_p$$

產出量의 解인  $y_t$ 式을 보면 政策無力性的의 命題가 成立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通貨量의 예기치 않은 變化만이 產出量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通貨供給의 豫測可能한 부분(피드백 규칙에 의한 부분)은 산출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가수준의 解인  $P_t$ 式을 보면 豫測可能한 通貨量( $\alpha y_{t-1}$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通貨量의 變化( $\varepsilon_t$ )도 물가수준에 영향을 준다. 아울러  $P_t$ 式과  $P_t^e$ 式을 比較하여 보면 그 差異는  $\frac{1}{1+\beta} \varepsilon_t$ 가 되는데  $\frac{1}{1+\beta} \varepsilon_t$ 의 期待값을 구하면 0이 된다. 따라서 물가수준과 豫想물가수준은 平均的으로 一致한다.

以上 살펴본 政策無力性的의 命題는 ‘마찰이 없는 經濟’에서는 成立하지만 現實經濟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마찰이 存在하기 때문에 豫想되는 政策이라도 산출량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政策無力性的의 命題를 너무 嚴면 그대로 받아들여 現實政策의 문제에 適用하기 보다는 ‘마찰이 없는 經濟’에서 成立하는 命題로서 巨視經濟理論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기존의 케인지안 경제학의 問題點은 기본 모형의 體系內에 경제주체의 合理的 行動과 배치되는 期待의 形成過程이 포함된 결과 經濟政策을 分析함에 있어서 경제의 民間부분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정부는 民間부분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에 의하여 경제의 實質變數에 영향을 준다. 즉 정부부분은 民間부분의 행동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完全雇傭水準과 상치하게 될 때 政策的 介入을 하는 반면, 民間부분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政策的 介入을 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行動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測面에서 본다면 政策無力性的의 命題는 경제의 民間부분이 정부의 體系的 政策을 고려하면서 행동하리라는 것을 基本模型의 테두리내에 도입하였다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지 現實的으로 여러가지 마찰이 存在하는 경제에서 政策無力

(4) 政策無力性的의 命題가 現實經濟에서 嚴면 그대로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은 루카스나 사젠티도 명 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性的 命題가 그대로 成立하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政策無力性的 命題를 完全하게 成立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몇가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 (i) 長期契約의 存在

政策無力性的 命題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형에서는 價格이 完全伸縮的이라고 보고 價格이 期待價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만 산출량은 自然산출량수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現實經濟에서는 價格은 完全伸縮的이지 못하며 長期契約으로 말미암아 硬直性을 가지게 된다. 物價와 賃金이 硬直性을 가지는 경우를 모형내에 도입하면 通貨政策의 期待된 部分이 과연 實物變數에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펠프스와 테일러[50], 피셔[21] 및 테일러[57]에 의하면 예기된 통화정책이라도 實物變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點에 대하여는 제 V절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ii) 調整費用

‘마찰이 없는 經濟’에서는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變數들이 즉각적으로 調整될 수 있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조정비용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정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例를 들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 공장을 단기간에 건설하려면 여러가지 무리가 따를 뿐 아니라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될 것이다. 資本스토크의 增加의 경우 뿐만 아니라 雇傭量을 變更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調整費用이 들게 된다. 이와 같은 조정비용의 存在는 예기된 政策變化라도 實物變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준다.

#### (iii) 情報集合의 構造

政策無力性的 命題는 경제모형내에 設定되어 있는 情報集合에 크게 依存한다. 만일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우월한 정보집합을 가지게 되면 정보측면에서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정부가 政策手段을 활용하게 되므로 合理的 期待下에서도 예기된 경제정책은 效果를 가진다.

#### (iv) 國債의 存在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國債를 도입하지 않은 模型을 사용하였으나 國債가 存在하는 模型에서는 政策中立性的 命題가 수정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 정부가 기대되는 通貨政策에 의하여 通貨供給을 증가시킨 결과 물가수준이 상승한 경우 國債의 實質價値가 變化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내의 實質變數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물론 민간부문이 國債에 대하여 國債이자를 미래의 租稅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그리고 미래의 租稅의 흐름을 어떻게 割引하여 現在價値로 환산하느냐 하는 問題와 關聯되게 되는데 물론 마찰이 없는 經濟에서는 國債의 가치와 미래조세부담의 現在價値가 一致하게 되지만 市場의 不完全性, 人間수명의 限界, 租稅제도 등을 감안할 때 現實經濟에서는

국채의 가치와 미래 조세부담의 現在價值間에 乖離가 나타나게 되며 이 경우 예기된 通貨政策이라도 實物變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理由로 말미암아 理論的 측면과 현실의 制度的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政策無力性的 命題가 완전히 成立하리라고는 期待하기 어려우며 政策無力性的 命題는 정책논의를 위한 하나의 시발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策無力性的 命題의 基本적 意義는 安定化 政策의 效果의 평가에 있어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分析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는 데 있다. 즉 合理的 期待를 도입한 모형에서도 經濟政策의 활용소지는 充分히 있지만 政策문제를 보는 基本적 視角은 政策無力性的 命題가 밝혀진 以後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計量模型에 의한 政策分析의 評價

政策無力性的 命題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루카스[35]는 종래의 計量經濟模型에 의한 經濟政策의 分析에 관하여 근본적인 批判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루카스의 비판’(Lucas's critique)이라고 한다.

既存의 計量模型에 의한 政策分析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典型的인 計量模型은

$$y_{t+1} = F(y_t, X_t, \theta, \epsilon_t)$$

단,  $y_{t+1}$ :  $t+1$ 期の 内生變數

$X_t$ : 政策變數를 포함한 外生變數

$\theta$ : 모형내의 變수들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參數

$\epsilon_t$ : 오류항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模型이 주어지면 標本期間 동안의 内生變數  $y$ 와 政策變數를 포함한 外生變數  $X$ 에 관한 資料를 이용하여 參數  $\theta$ 를 推計한다. 參數  $\theta$ 가 推計되면 計量模型은 政策실험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政策실험은 政策의 시나리오를 변경시켰을 때, 内生變數( $y$ )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分析하는데 사용되며, 이때 參數  $\theta$ 의 값은 고정된 것으로 보고 政策效果를 分析한다. 즉 計量經濟模型이 政策시나리오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安定的인 것으로 보고 經濟政策의 效果를 分析한다. 루카스에 의하면 合理的 期待를 도입한 모형에서는 經濟政策의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경우 民間部門의 行態方程式이 經濟政策의 시나리오 변경에 따라 期待變數를 통하여 변하게 되므로 參數  $\theta$ 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政策시나리오의 函數이다. 民間部門의 行態方程式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經濟主體가 새로운 經濟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期待形成過程을 통하여 行態變數를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루카스의 비판을 프리드만의 恒常所得理論에 合理的 期待假說을 도입하여 재정립한 간단한 模型을 이용하여 살펴보자. 恒常所得假說에 의하면 消費函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_t = k y_t^p$$

단,  $y_t^p$ : 恒常所得

항상 소득이 未來所得의 期待値의 할인된 現在價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恒常所得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y_t^p = \sum_{s=1}^{\infty} \beta^{s-1} y_{t-s}^e$$

단,  $y_{t-s}^e$ : ( $t-1$ )期에서의  $s$ 期の 所得의 期待値

$\beta$  : 할인인자

期待에 관한 假說로서 合理的 期待를 도입하여  $y_{t-s}^e$ 가 수학적 기대값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소득이 임의적 과정(random walk process)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y_t = y_{t-1} + \epsilon_t$$

단,  $\epsilon_t$  : 오류항

임의적 과정은 ( $t-1$ )期の 觀點에서 未來所得의 期待値가 미래의 시점여하에 상관없이  $y_{t-1}$ 의 값을 가진다는 데 있다. 즉,  $s > t-1$ 인 모든  $s$ 값에 대하여  $y_{t-s}^e = y_{t-1}$ 가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恒常所得을 구하면,

$$y_t^p = \frac{1}{1-\beta} y_{t-1}$$

이 되는데, 恒常所得을 消費函數에 代入하면,

$$c_t = \frac{k}{1-\beta} y_{t-1}$$

이 된다.

經濟政策의 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政策當局이 새로운 安定정책을 채택하여 所得이 과거에 비하여 安定化된 결과 소득결정과정

$$y_t = \bar{y} + \epsilon_t$$

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하자. 즉, 새로운 安定정책이 성공하여 所得의 일정수준  $\bar{y}$ 에서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교란요인을 제외하고는 安定化되었다고 하자. 이제 未來所得에 대한 기대치를 구하면,  $s > t-1$ 인 모든  $s$ 값에 대하여  $y_{t-s}^e = \bar{y}$ 가 된다. 이를 이용하여 恒常所得을 구하면, 恒常所得은

$$y_t^p = \frac{\bar{y}}{1-\beta}$$

가 되며 이를 소비함수에 대입하면,

$$c_t = \frac{k}{1-\beta} \bar{y}$$

가 된다.

消費函數에 관한 두 식을 비교하여 보면 前者의 경우에는 消費가 前期의 所得水準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後者の 경우에는 消費水準이 特定期의 所得水準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政府의 安定政策에 의하여 所得결정과정이 바뀌게 되면, 民間部門이 소득결정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므로 消費函數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종래의 經濟安定化政策에 대한 分析은 새로운 安定政策의 채택이 民間部門의 행태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대한 오류를 가지게 된다.

루카스의 批判은 經濟模型의 특정부분이나 또는 어떤 특정경제모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消費函數 이외에도 投資函數, 필립스 곡선, 利率이론 등 期待를 포함하는 理論들은 전부 이 批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루카스의 批判은 期待를 포함하는 部門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部門을 포함하는 經濟模型 自體가 전통적인 政策分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루카스의 批判은 1960年代 이후 널리 經濟模型에 활용되고 있는 最適制御理論(optimal control theory)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최적제어이론은 計量模型을 推計한 후에 政策當局者의 선호를 나타내는 社會的 厚生函數를 극대화하도록 정책변수를 결정한다. 이 경우, 既存理論에 의하면, 民間部門의 內生變數에 대한 期待值가 政策결정과 상관없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최적제어이론을 이용하여 最適政策을 선택하게 되는데 期待에 관하여 合理的 期待理論을 도입하게 되면, 政府에 의한 政策결정방식의 변화는 民間部門의 行動을 변화시키게 된다.

물론, 政策實驗 중에서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종류의 정책실험과 그렇지 않고 주어진 환경하에서의 政策實驗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심즈[56]는 많은 정책조치가 안정적 환경하에서의 쇼크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計量模型을 구성하고 있는 方程式들이 정책조치에 대하여 不變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政策에 있어서의 중대한 방향전환은 과거에 기반을 두어 推計한 계량모형의 행태방정식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루카스의 批判'은 計量經濟模型을 이용한 政策分析에 대한 과거의 傳統的 視角을 완전히 변경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 3. 均衡景氣變動理論

合理的 期待革命은 政策無力性的 命題와 '루카스의 批判'을 통하여 經濟政策을 보는 傳統的 케인지안의 視角을 완전히 변경시켰다. 政策無力性的 命題와 '루카스의 批判'에 대하



여 論難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 내용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期待에 관하여 傳統的으로 사용되어 왔던 適應의 期待가 經濟政策의 效果를 分析하는 데 커다란 限界點이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合理的 期待를 도입하는 경우 傳統的 政策分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의 핵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理論 中の 하나인 均衡景氣變動理論은 아직도 많은 論難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제까지 分析한 새古典學派의 巨視經濟模型에 의하면, 產出量이 自然產出量水準에서 이탈하기는 하지만 그 이탈은 예측 불가능한 교란항의 형태로 나타나며, 아무런 패턴이 없다. 그러나 現實經濟에서의 產出量의 움직임을 보면 系列相關이 있으며 景氣는 好況局面과 不況局面이 교대되어 반복된다.

새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에서는 均衡理論에 입각하여 景氣의 好況과 不況이 교대로 반복되는 景氣變動現象을 설명하려고 한다. 새古典學派 經濟學에서는 產出量의 系列相關으로 나타나는 景氣變動現象을 經濟主體들의 合理的 選擇行動의 結果로 파악하는데 經濟主體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制約條件에서 景氣變動의 原因을 파악하려고 한다.

루카스[56]에 의하면, 景氣變動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現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經濟主體들의 期待가 合理的이라고 假定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여러가지 制約條件下에서의 經濟主體의 最適化 行動의 結果로서 景氣變動 또는 產出量의 系列相關이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까지 살펴 보았던 系列相關이 없는 경제모형을 다소 수정하여 系列相關을 모형내에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루카스는 單一財貨模型을 이용하여 完全한 情報를 가지지 못한 대표생산자를 상정하여 系列相關의 발생을 설명한다. 대표생산자는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財貨를 生産한다. 편의상 生産은 勞動의 投入量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대표생산자의 產出量의 販賣價格은 物價水準이 주어진 경우 그의 實質賃金과 同一視할 수 있다. 매일매일 대표소비자는 그의 재화에 대한 판매가격을 관찰하고 얼마만큼의 勞動을 投入하여 生産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대표생산자는 販賣價格이 上昇한 경우 勞動投入量 및 生産量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價格의 上昇이 一時的인가 持續의인가에 따라 그 效果가 다르게 된다. 판매가격(실질임금)의 持續的 變化가 雇傭에 미치는 效果는 微微하다. 그러나 판매가격(실질임금)의 一時的 變化가 雇傭에 미치는 效果는 비교적 크다. 예를 들어, 오늘의 實質賃金이 未來의 實質賃金에 비하여 一時的으로 높은 경우를 상정하면 대표생산자는 오늘 生産量을 늘리고 미래에

그의 時間의 기회비용이 낮을 때 여가를 즐기게 될 것이다. 여가를 언제 취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代替性이 높기 때문에 實質賃金の 소폭적 변화가 雇傭量의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이 루카스의 均衡景氣變動理論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均衡景氣變動理論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勞動市場이 清算되면서 景氣變動現象이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景氣循環過程에서 勞動의 供給이 產出量의 現實的 變化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변화하여야 한다.

이제, 不完全한 情報가 어떻게 하여 景氣變動을 유발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대표생산자는 價格上昇에 직면하여 그것이 持續的인지 一時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價格變化的 分散은 一時的 要因에 의한 分散과 持續的 要因에 의한 分散의 合計이므로 價格變化的 分散에서 一時的 要因에 의한 分散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一時的 要因에 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까지 個別生産者의 반응을 分析하였는데 景氣變動의 現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不確實性 즉, 物價水準의 不確實性을 도입하여야 한다. 物價水準의 不確實性이 있는 상황에서 代表生産者는 판매가격의 변화가 얼마만큼이 인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얼마만큼이 相對價格에 기인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판매가격의 分散은 物價水準의 分散과 相對價格의 分散의 合計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대표생산자는 이 비율을 이용하여 그의 판매가격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것인지 相對價格의 變化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두 요소를 이용하여 景氣變動現象을 설명하기 위하여 通貨量이 예기치 않게 증가하여 物價水準이 上昇한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대표생산자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販賣價格의 變化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를 物價水準의 變化로 파악하고 나머지를 相對價格의 變化로 파악할 것이다. 이 相對價格의 變化중에서 一時的 變化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雇傭增加를 모든 生産者에 대하여 集計하게 되면 景氣의 擴張을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景氣變動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均衡景氣循環理論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景氣變動의 진폭, 즉 擴張局面이 왜 지속적이고 마찬가지로 收縮局面이 왜 지속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持續을 설명하는 模型으로 確率的 교란요인이 景氣循環과정에서 自然產出量의 變化를 초래하는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模型으로서 블라인더와 피셔[12]에 의한 在庫模型과 사전트[53]에 의한 調整費用模型 및 資本形成模型을 이용할 수 있는데 以下에서는 在庫模型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在庫模型에 의하면 系列相關이 없는 예측오차에 의하여 產出量의 持續的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通貨量의 예기치 않은 變化의 경우 物價水準에 예기치 못한 變化가 오게 된다. 代表企業은 價格變化의 일부를 相對價格의 變化로 파악하고 生産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在庫를 감소시킬 것이다. 短期에는 產出量이 증가하고 在庫스톡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代表企業이 相對價格의 變化가 없는 物價水準의 變化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정상생산수준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在庫스톡크가 의도된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企業은 在庫스톡크가 의도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정상수준 이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예측에 있어서의 初期의 一時的 잘못은 產出量의 수준을 장기간 정상수준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產出量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y_t = \alpha(N^* - N_t) + \beta(P_t - P_t^e)$$

단,  $N^*$ : 의도된 재고스톡크

$N_t$ : 실제의 재고스톡크

위 模型에 의하면 民間部門이 物價水準을 완전히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在庫수준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產出量이 추세치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된다. 그 결과 物價의 예기치 않은 變化는 產出量의 持續的 變化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均衡景氣變動은 市場清算의 가정과 經濟主體의 合理的 選擇에 기반을 두어 景氣變動現象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方法論은 古典學派의 方法論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古典學派의 理論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理論模型에 不確實性을 도입하였다는 사실인데, 이 경우에도 不確實性下에서 전개된 合理的 期待理論을 不確實性이 없는 종류의 經濟에 적용하면 古典學派에 의하여 주로 사용되었던 完全豫見의 期待가 된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V. 케인지안 經濟學의 對應

세 古典學派 巨視經濟學에 대한 케인지안 經濟學의 批判은 大別하여 價格伸縮性의 가정에 대한 批判과 均衡景氣變動理論에 대한 批判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sup>(5)</sup>

### 1. 契約理論

세 古典學派의 巨視經濟模型에서는 價格의 완전한 伸縮性을 가정하고 있는데 現實經濟를

(5) 이와 같은 두가지 批判 이외에도 合理的 期待理論 自體가 微視經濟理論의 分析에는 적합하지만 巨視經濟模型의 分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보면 價格이 伸縮的인 市場도 있지만 價格이 硬直的인 市場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勞動市場을 볼 때, 여러가지 制度的 要因과 임금협상절차로 말미암아 賃金은 적어도 完全伸縮的이지 못하다. 勞動市場뿐만 아니라 製造業部門의 일부 재화의 가격은 관리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需要·供給의 變化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성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價格과 賃金이 完全伸縮的이지 못하다면, 價格의 硬直性을 가진 巨視經濟模型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以下에서는 賃金 및 物價의 硬直性을 두가지 觀點에서 정리에 보고자 한다. 먼저 契約理論의 觀點에서 硬直性 특히 賃金の 硬直性의 側面을 살펴본 후 오쿤(Okun)[47]의 正札價格經濟(price-tag economy)를 이용하여 物價의 硬直性을 살펴보려고 한다. 賃金과 物價의 硬直性을 전제로 하면, 合理的 期待假說을 도입한 模型이라고 하더라도 體系的 安定政策은 效果를 가지게 되며 政策無力性的 命題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第Ⅳ節에서 간략하게 지적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模型을 이용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契約理論을 아자리아디스[2], 베일리[3] 등으로 대표되는 暗默的 契約理論<sup>(6)</sup>과 피셔-벨프스-테일러의 模型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도록 하자.

#### (가) 暗默的 契約理論

古典學派의 勞動市場理論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實質賃金이 조정된 결과 實質賃金과 勞動의 限界生産性이 일치하는 곳에서 市場이 清算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企業은 景氣가 하락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의 勞動者를 一時解雇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古典學派의 勞動市場理論은 이러한 경험적인 현상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不確實性이 存在하는 현실의 勞動市場은 未來의 노동서비스에 대한 條件附請求權(contingent claims)이 거래되는 完全市場이 아니므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危險에 대한 態度的 차이가 존재하면 위험에 대한 거래의 誘因이 발생한다. 즉, 기업이 安定的인 임금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기대효용이 증가하고, 企業은 평균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勞動費用을 절감하여 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企業과 勞動者 사이에는 임금과 고용에 관한 暗默的 契約(implicit contract)이 成立하게 된다.

아자리아디스[2]와 베일리[3] 등으로 대표되는 초기의 暗默的 契約理論은 이러한 觀點에서 經濟變動에 따른 임금의 硬直성과 일시해고의 현상을 企業의 合理的인 행동의 결과로부

(6) 암묵적 계약이론은 케인지안의 契約理論과는 구분하여 새 古典學派의 理論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겠으나, 계약이론에 관한 시발점을 이루고 있으므로 本節에서 다루었다.

터 도출하였다.

아자리아디스와 베일리 등의 初期契約理論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勞動市場이 競賣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파레토 最適狀態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勞動이라는 人的 資本이 가지는 특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企業이나 産業의 기술적 고유성과 지리적 분리성 등에 의해서 勞動의 移動費用이 발생하며, 따라서 勞動의 移動은 제한된다. 不確實性下에서 勞動이라는 人的資本은 多邊化(diversification) 할 수 없는 특질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勞動市場은 不完全하며, 따라서 不確實性下에서 未來의 모든 상태의 노동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청구권의 거래가 事前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不完全한 勞動市場에서 勞動者は 經濟變動에 따른 임금과 고용에서의 危險을 分散시키기 위해서는 企業으로부터 임금과 고용의 安全性에 관한 보장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기업가는 未來의 不確實性에 대해서 그들의 資産과 資本市場에 관한 우월한 지식 등을 이용하여 資本市場에서 효과적으로 위험분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勞動者和 企業家は 勞動市場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위험에 대한 去來의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企業과 勞動者 사이에는 임금과 고용의 安全性에 대한 暗黙의 契約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암묵적 계약에 의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合理的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賃金の 伸縮性이 制約을 받게 된다.

#### (나) 피셔-펠프스-테일러 模型

피셔[21, 22], 펠프스와 테일러[50, 57]에 의하여 개발된 피셔-펠프스-테일러 模型에 따르면 民間經濟主體(기업가와 勞動者)는 契約에 의하여 價格을 長期에 걸쳐서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 契約期間 內에 政策當局이 신속하게 經濟政策을 변경시키게 되면 政策當局의 體系的 政策이 合理的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長期契約으로 말미암아 價格이 묶여 있게 되어 政策變化가 實質變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이  $t$ 期말에  $(t+1)$ 期和  $(t+2)$ 期の 價格을 長期契約에 의하여 고정시키고  $(t+1)$ 期나  $(t+2)$ 期에 이르러  $t$ 期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契約을 준수하다고 하자. 마찬가지로  $(t+2)$ 期말에  $(t+3)$ 期和  $(t+4)$ 期の 價格을 契約한다고 상정하자. 다시 말하면 짝수번째 期末에 다음의 2期에 대하여 契約을 한다. 價格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민간경제주체는 다음 2期の 物價水準에 대하여 合理的 期待에 의하여 物價期待를 形成한다고 가정해 보자. 0期에서 1期和 2期에 총수요가  $AD_0$ 가 되리라고 예상하여  $P_0$ 의 價格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상정하자. 그러나, 2期에 이르러 0期の 예상과는 달리 總需要가  $AD_1$ 이 되면 價格은 契約에 의하여  $P_0$ 에 묶여 있고 總需要는  $y_1$ 이 되어 不均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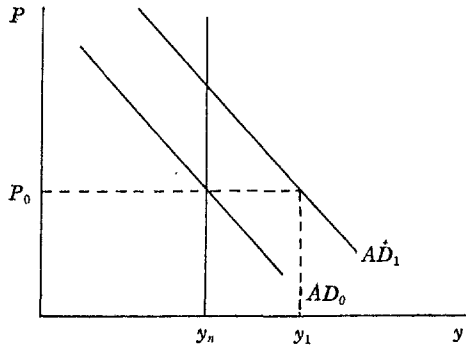


그림 3. 硬直的 價格과 超過需要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不均衡에서 數量을 배분할 배분규칙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편의 상 기업이 단골고객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요되는 양만큼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가정하자.<sup>(7)</sup> 政府가 政策的 介入을 하지 않는 경우 產出量은  $y_1$ , 價格은  $P_0$ 가 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企業이 1期末에 이르러 2期에 總需要가  $AD_1$ 이 될 것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0期의 觀點에서는 2期の 總需要가  $AD_1$ 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1期末에 이르러 政府는 2期에 總需要가  $AD_1$ 으로 이동하여 景氣가 과열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總需要抑制政策에 의하여 2期の 總需要를  $AD_1$ 에서  $AD_0$ 로 이동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價格이 契約에 의하여 硬直되어 있는 期間이 政策當局의 계획기간 보다 길다면 예기된 政策이라 하더라도 實質變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政府의 政策은 總需要의 變化에 기인하는 경제교란을 체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政府의 經濟政策의 效果는 民間部門이 長期契約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행동에 制約을 가하기 때문이며 政府는 이와 같은 制約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經濟安定化를 기할 수 있다. 이때 과연 長期契約의 체결이 合理的 행동의 결과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 2. 正札價格經濟

競賣人에 의한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경매시장이론에서는 임금과 가격이 항상 市場을 清算하게끔 완전히 조정된다. 그러나, 賃金과 價格이 硬直적이게 되면 조정과정에서 雇傭과 產出 등의 數量變數가 조정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오킨[47]의 논의를 중심으로 正札價格經濟(price-tag economy)를 分析하기 위하여 生産物市場을 살펴보자.

傳統的 短期市場分析에서는 企業은 價格收容者(price-taker)이며 數量設定者(quantity-

(7) 이 가정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가정이며 배분규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maker)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몇가지 경매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生産物市場의 경우, 生産物의 판매자는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설정자로서 正札價格(price-tag)을 통하여 판매행위에 참가하며, 구매자는 費用이 수반되는 쇼핑과정(shopping process)을 통해 구매행위에 참가한다.

구매자는 受容價格(acceptance price)을 마음속에 지닌 채 여러 판매자 사이를 쇼핑한다. 그러나, 이러한 쇼핑과정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구매자는 무한정 쇼핑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으며, 구매자는 자신의 쇼핑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獨占力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판매자도 구매자의 쇼핑비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力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힘의 均衡은 多數의 均衡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구매행위에 만족하고 또 지난 번 구매에서 얻은 情報가 지금까지 有效하다고 믿는 구매자는 단골로서 지난번의 판매자에게 구매하려 할 것이다. 獨占力을 가진 구매자나 판매자 사이의 관계는 雙方獨占을 형성하며, 이에는 雙方獨占인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쌍방독점인여에 의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暗黙의 契約關係가 成立하게 되며, 또한 이런 암묵적 계약관계를 장기간 지속시킬 誘因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단골관계는 공식적인 長期契約과 조직화된 미래시장이라는 비용이 수반되는 制度의 效率의인 代替制度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企業이 需要變動에 따라 價格을 변화시킬 때에는, 특히 많은 품목을 生産하는 기업의 경우 각 품목의 가격을 결정해서 전달해야 하며 競爭者의 가격도 모니터해야 하는 등 많은 관리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企業이 위험기피적이라면 需要의 變動에 따라 價格을 변화시키지 않게 된다. 需要變動에 대하여 價格이 硬直性을 나타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價格의 安定性을 약속함으로써 단골들의 쇼핑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의 약속은 오늘의 需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企業은 價格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단골에게 確信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그 확신정도가 클수록 반복판매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약속을 한 뒤에는 費用의 큰 變動이 없는 한 價格을 安定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은 가격을 需要의 변동에 대해 下方硬直的일 뿐만 아니라, 上方硬直的으로 만든다. 이렇게 價格이 보다 작은 쪽으로 그리고 보다 덜 자주 변화함으로써 需要變動에 따른 調整過程의 부담을 產出量이 지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보다 더 큰 產出量의 變動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均衡景氣變動理論의 批判

均衡景氣變動理論은 케인지안 經濟學者 뿐만 아니라 通貨主義者들에 의하여서도 맹렬한

批判을 받고 있다. 均衡景氣變動模型에 대한 批判은 均衡概念의 景氣變動分析에서의 有用性에 관한 批判과 均衡景氣變動理論에 관한 理論的 批判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巨視經濟模型에서 物價水準이 總需要曲線과 總供給曲線의 交點에서 결정될 때 市場이 清算된다. 新古典學派 巨視經濟理論에 의하면 市場은 連續적으로 清算된다는 假定下에서 理論을 整理하고 있는 반면, 케인지안의 傳統的 견해에 의하면 均衡價格은 實際價格이 時間의 경과에 따라 움직여 가게 되는 長期的 均衡값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見解에 의하면, 經濟는 계속적으로 不均衡狀態에 있다. 케인지안에 의하면 經濟는 현실적으로 결코 長期均衡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連續的 均衡에 의한 景氣變動의 分析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通貨主義者들은 長期와 短期를 구분하고 短期에는 均衡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長期에는 經濟는 均衡하게 되며, 長期均衡의 개념은 經濟模型을 分析함에 있어서 有用하다고 믿지만 連續的 均衡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반면,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理論體系에서 長期와 短期의 區分이 不必要하다고 주장한다.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連續的 均衡을 想定하기 때문에 均衡價格을 實際價格으로 해석하고 있다.

新古典學派의 均衡理論에서는 勞動市場의 分析에 있어서도 均衡理論을 적용하므로 勞動市場에서의 雇傭과 失業은 經濟主體에 의한 선택의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케인즈에 의하여 고안된 非自發的 失業이라는 概念自體의 經濟分析에 있어서의 有用性を 부인한다. 반면에 케인지안의 見解에 의하면 失業이나 景氣變動의 현상은 不均衡의 지속을 의미한다. 특히 勞動市場에서의 不均衡의 지속은 케인지안 模型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이루고 있다. 均衡의 概念에 대한 批判 이외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均衡景氣變動의 理論的 側面에 관한 批判을 情報集에 관한 側面과 景氣의 진폭과 持續性(persistence)의 문제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均衡景氣變動理論에서 景氣循環을 유발하는 것은 情報의 부족이다. 그러나, 現實經濟에서 經濟의 總量指標는 政府에 의하여 수집되어 公表되고 있으므로 總量指標에 대한 情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景氣變動이 초래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케인지안에 의하면 總量指標에 관한 情報 부족으로 말미암아 산출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產出量의 變化의 현실적인 진폭을 전부 情報부족에 의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며, 특히 好況의 持續性과 不況의 持續性을 合理的 經濟主體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거나 예측오차를 長期間 파악하지 못한 결과 그들의 선택행동을 조정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 VI. 結 論

本論文에서는 合理的 期待理論이 등장한 이후의 巨視經濟學의 變化를 주로 新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의 발전과 이에 대한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의 對應이라는 觀點에서 정리하였다. 本節에서는 新古典學派 巨視經濟學과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을 대비하여 (i) 기본적 經濟觀, (ii) 均衡理論의 有用性, (iii) 物價와 賃金の 硬直性이라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國民經濟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 내지 經濟觀은 自由放任主義 經濟觀과 干涉主義 經濟觀으로 大別할 수 있겠다.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에 의하면 經濟의 民間部門은 本質적으로 安定的이며 일시적인 교란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自然率水準으로 돌아가는 內在의 메카니즘이 있다고 믿는다. 新古典學派 巨視經濟學은 古典學派의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을 물려받아 經濟의 內在의 메카니즘에 대한 基本的 신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간섭주의 경제관에 의하면 資本主義 經濟는 本質적으로 不安定하며, 經濟에 충격이 있는 경우 時間이 경과하더라도 自然率水準으로 복귀되어 가는 힘이 없다고 주장한다. 케인지안 巨視經濟學은 케인즈의 經濟觀을 물려받아 政府의 財政政策 및 通貨政策에 의한 적극적 介入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하다고 주장한다.

干涉主義 經濟觀과 自由放任主義 經濟觀은 논리적으로 볼 때 現實經濟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優劣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經濟觀을 경험적 증거에 입각하여 檢定함으로써 하나의 合意點에 도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經濟觀이 일시적으로 지배적인 經濟觀으로 자리잡는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經濟與件이 변화하게 되면 지배적 경제관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自由放任主義 經濟觀 對 干涉主義 經濟觀의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經濟全體에서 政府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다. 케인지안에 의한 간섭주의 경제관이 대두되기 이전, 古典學派의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이 지배적이던 시대에는 政府部門이 經濟全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케인지안의 간섭주의 經濟觀이 主流巨視經濟學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政府部門의 비중이 급속하게 커졌으며, 점차 政府部門의 지나친 비대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干涉主義 對 自由放任主義의 문제는 현재의 政府部門의 비중을 고려하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經濟分析에 있어서 均衡의 개념의 有用성을 둘러싸고 케인지안의 不均衡理論과 新古典學

派의 均衡理論은 날카로운 對立을 보이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不均衡理論 對 均衡理論의 觀點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模型의 구체적 구조를 고려하면서 논의하여야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不均衡理論이라고 불리우는 理論도 결국은 특수한 형태의 均衡理論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케인지안의 不均衡理論은 勞動市場의 不均衡만을 허용한 상태에서의 여타의 市場의 동시적 균형을 다루는 均衡이론이다. 대부분의 經濟理論은 均衡理論이며, 經濟分析에 있어서 均衡의 概念을 배제하고는 여타의 적절한 分析手段이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케인지안 不均衡理論의 本質的 문제는 다른 모든 부문에 대해서는 經濟的 合理性에 기반을 둔 선택행위에 입각하여 理論을 전개하면서 왜 유독 勞動市場에만 不均衡을 허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理論의 次元에서 論한다면 勞動市場에서도 당연히 均衡의 개념을 도입하며 模型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케인지안 理論에서는 巨視經濟模型의 現實適合性이라는 觀點에서 전략적으로 勞動市場을 다른 市場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 論議에서의 기본적인 爭點은 均衡理論의 觀點을 論理的 極限까지 몰고 간다고 하면 現實經濟는 合理的 經濟主體에 의한 선택에 기반을 둔 均衡으로서 最適中의 最適의 經濟가 될 것이며, 그 결과 均衡理論은 既存制度 내지 질서의 완벽한 옹호라는 측면으로 偏倚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케인지안의 不均衡理論은 現實에 적합한 理論體系를 위하여 勞動市場에 均衡理論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이론적 맹점이 있다. 결국 일관된 理論體系 對 現實適合性사이의 타협의 문제가 巨視經濟理論의 기본적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賃金과 價格의 硬直性에 관한 論議도 理論體系 對 現實適合性간의 선택이라는 觀點에서 정리할 수 있다. 契約理論을 이용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자. 세 古典學派 理論에서는 合理的 行動에 기반을 둔 契約이라는 觀點에서 契約理論을 전개한다. 반면에 케인지안들은 現實의 物價와 賃金에 硬直性이 存在하므로 이와 같은 現實을 묘사하기 위하여 契約理論을 전개한다. 케인지안 契約理論의 長期契約에 대하여 케인지안들은 現實適合性을 내세우는 반면 세 古典學派 理論은 長期契約制度 自體가 과연 合理的인 經濟主體가 선택에 의하여 만든 制度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케인지안은 現實의 長期契約制度가 合理性에서 출발되어 고안된 合理的 制度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

經濟制度가 合理的 經濟主體에 의한 最適化 行動의 결과로 만들어진 制度라면, 現實經濟는 最適中의 最適의 世界라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실경제가 최적중의 최

(8) '케인지안의 不均衡理論'은 클라우어[16], 레이온후드[31], 바로와 그로스만[8] 등에 의하여 개발된 불균형이 존재하는 시장사이의 상호관계와 경제주체의 행동의 조정을 분석하는 모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케인지안 模型에서 勞動市場의 不均衡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적의 세계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케인지안 理論처럼 最適化 行動을 勞動市場을 제외한 여타의 부문에만 적용한다는 데에는 理論의 포기라는 문제가 있다. 결국, 巨視經濟學은 일관된 理論體系 對 現實適合性問의 타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Attfield, C.L.F., *Rational Expectation in Macro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2] Azariadis, C., "Implicit Contracts and Un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975, pp.1103-1202.
- [3] Bailes, M.N., "Wages and Employment under Certain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1974, pp.37-50.
- [4] Barro, R.J.,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Role of Monetary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 1976, pp.1-33.
- [5] Barro, R.J., "Unanticipated Money Growth and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67, 1977, pp.101-115.
- [6] Barro, R.J., "Long Term Contracting, Sticky Prices and Monetary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 1977, pp.305-316.
- [7] Barro, R.J., "Rational Expectations and Macroeconomics in 1984," *American Economic Review*, 74(2), 1984, pp.179-182.
- [8] Barro, R.J. & H.I. Grossman, "A General Disequilibrium Model of Income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971, pp.82-93.
- [9] Begg, D.K.H.,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Non-Neutrality of Systematic Monetary Polic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2), 1980, pp.293-303.
- [10] Begg, D.K.H., "Rational Expectations, Wage Rigidity and Involuntary Employment: A Particular Theory," *Oxford Economic Papers*, 34(1), 1982, pp.23-47.
- [11] Begg, D.K.H., *The Rational Expectations Revolution in Macroeconomics*, Phillip Allan, Oxford, 1982.
- [12] Blinder, A.S. & S. Fisher, "Inventorie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8, 1981, pp.277-304.

- [13] Bray, M., "Future Trading,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Efficient Markets Hypothesis," *Econometrica*, 49, 1981, pp. 575-596.
- [14] Cagan, P., "The Monetary Dynamics of Hyperinflation," in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edited by M. Friedman, Chicago University Press, 1956.
- [15] Cagan, P., "Reflections on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Part 2, 12(4), 1980, pp. 826-832.
- [16] Clower, R., "The Keynesian Counter 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Hahn, F.H. and F.P.R. Brechling,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London, 1965.
- [17] Ezekiel, M., "The Cobweb Theore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2, 1938, pp. 255-280.
- [18] Fair, R.C., "A Criticism of One Class of Macroeconomic Models with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0, 1978, pp. 411-417.
- [19] Feiwel, G.R. "Keynesian Economics, Neoclassical Synthesis and Resurgence of Classical Macroeconomics," *Economica*, 5, 1981, pp. 209-257.
- [20] Felix, D., "The Impotence of Macroeconomic Policy Activism: A Critical Appraisal of the New Classical Macro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ssues*, 18, 1984, pp. 825-859.
- [21] Fisher, S., "Long-Term Contract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Optimal Money Supply Ru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977a, pp. 191-205.
- [22] Fisher, S., "Long-Term Contracting, Sticky Prices, and Monetary Policy: A Com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 1977b, pp. 317-323.
- [23] Fisher, S., ed.,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ic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icago, 1980.
- [24] Friedman, M.,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A Restatement," in his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56, pp. 3-21.
- [25] Friedman, M., "The Role of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58, 1968, pp. 1-17.
- [26] Gordon, R.J.,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Inflation and Unemploy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April 1976.

- [27] Hahn, F.H., "Monetarism and Economic Theory," *Economica*, 47, 1980, pp. 1-17.
- [28] Harberler, G., "Critical Notes on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2, 1980, pp. 833-836.
- [29] Hoover, K.D., "Two Types of Monetar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1984, pp. 58-76.
- [30] Lahiri, K. & J.S. Lee,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Short-Run Phillips Curv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 1979, pp. 167-190.
- [31] Leijonhufvud, A., "Keynes and the Keynesians: A Suggested Interpre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pp. 401-410.
- [32] Lowenberg, A.D.,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Macro Rational Expectations Paradigm," *Southern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50, 1982, pp. 208-224.
- [33] Lucas, R.E. Jr., "Expectations and the 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4, 1972, pp. 103-124.
- [34] Lucas, R.E. Jr., "Some International Evidence on Output Inflation Trade Offs," *American Economic Review* 63, 1973, pp. 326-334.
- [35] Lucas, R.E. Jr.,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A Critique," in K. Brunner and A.H. Meltzer (eds.), *The Phillips Curve and Labour Markets, Supplement to th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76.
- [36] Lucas, R.E. Jr.,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in K. Brunner and A.H. Meltzer eds., *Stabilization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y*, Amsterdam, North-Holland, 1977.
- [37] Lucas, R.E. Jr., "Methods and Problems in Business Cycle Theor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Part 2, 12(4), November, 1980, pp. 696-715.
- [38] Lucas, R.E. Jr., *Studies in Business Cycle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1.
- [39] Lucas, R.E. Jr., "Expectations and the 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31(3), Oct., 1983, pp. 197-199.
- [40] Lucas, R.E. Jr. & L.A. Rapping, "Real Wages, Employment and Inf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9, pp. 721-754.
- [41] Lucas, R.E. Jr. & T.J. Sargent, "After Keynesian Macroeconomics," in *After the Phillips Curve: Persistence of High Inflation and High Unemployment*, FRD of Bos-

- ton, *Confe.*, 11(4), 1970, pp.84-88.
- [42] McCallum, B.T., "Rational Expectations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An Overview,"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Part 2, November, 12(4), 1980, pp. 716-746.
- [43] Makinen, G.E., "Recent Developments in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Atlantic Economic Journal*, 11, 1983, pp. 84-88.
- [44] Modigliani, F., "The Monetarist Controversy or Should We Forsake Stabilization Policies?" *American Economic Review*, 67, 1977, pp. 1-19.
- [45] Muth,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Theory of Price Movements," *Econometrica*, 29, 1961, pp. 315-335.
- [46] Nerlove, M., "Adaptive Expectations and the Predictive Efficiency of Economic Models," *Journal of Business*, 48, 1958, pp. 331-343.
- [47] Okun, A., *Prices and Quantities: A Macroeconomic Analysis*, Oxford, Basil Blackwell, 1981.
- [48] Perry, G.L., "Reflections on Macro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74, 1984, pp. 401-407.
- [49] Phelps, E.S., "The New Microeconomics in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in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edited by Phelps, New York: Norton, 1970.
- [50] Phelps, E.S. & J.B. Taylor, "The Stabilizing Powers of Monetary Policy under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977, pp. 165-190.
- [51] Phillips, A.W.,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K. 1861~1957," *Economica*, 25, 1958, pp. 283-299.
- [52] Sargent, T.J., "A Classical Macroeconometric Model of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976, pp. 207-238.
- [53] Sargent, T.J., *Macroeconomic Theory*,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 [54] Sargent, T.J. & N. Wallace, "Rational Expectations, the Optimal Monetary Instruments and the Optimal Money Supply Ru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975, pp. 241-254.
- [55] Sheffrin, S.M., *Rational Expec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56] Sims, C.A.,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 1980, pp. 1-48.
- [57] Taylor, J.B., "Staggered Wage Setting in a Macro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69, 1979, pp. 108-113.
- [58] Taylor, J.B., "Aggregate Dynamics and Staggered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 1-23.
- [59] Taylor, J.B., "Rational Expectations Models in Macroeconomics," NBER Working Paper, No. 1224, 1983.
- [60] Tobin, J., "Stabilization Policy Ten Years After,"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0, pp. 19-71.
- [61] Tobin, J., "Are New Classical Models Plausible Enough to Guide Polic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2, 1980, pp. 788-799.
- [62] Tobin, J., "The Monetarist Counter-Revolution Today—An Appraisal," *Economic Journal*, 91, 1981, pp. 29-42.
- [63] Weiss, L.M., "The Role for Active Monetary Policy in a Rational Expectations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 221-233.